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2

웅진칼럼 _ 3

효(孝)를 생각하며 _ 이선행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④ _ 6

한국 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부

의회를 찾아서④ _ 8

- 양준모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이충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부위원장

특집(I) _ 12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⑤ / 백원철

특집(II) _ 16

공주의땅이름 이야기⑥ / 장길수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_ 20

닥종이 종이접기

우리 고장의 옛 자취를 찾아서 _ 22

-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③ / 이일주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28

- 사곡면 호계리

공주의 인물 _ 34

- 승병대장 영규대사

내고장 소식 _ 36

- 시정소식

- 내고장소식

- 미담

예술의 향기 _ 50

문화원 소식 _ 56



公州의 어제와 오늘

1903~1912



군산우편국 공주우편취급소

1913~1965



공주우편국

1965~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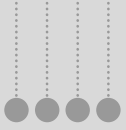


공주우체국

공주우체국 | 출범 당시부터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했으며, 공주우체국을 거쳐간 국장만 해도 42명이나 되는 등 대전·충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공주우체국





‘효孝’를 생각하며



李善行 _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중도불교문학 회원
- 공주문학 회원
- 공주금강여성문학 동인
- 공주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외래교수
- 현 공주시 보건·의료 공무원
- E-mail: lovely3004@hanmail.net

어느 날, 고향 친구가 동창회 홈페이지에 쓸쓸한 노부부의 말년 이야기를 올렸다. 이야기 속의 노부부는, 당신들의 온 생을 다 바쳐서 형제를 훌륭히 길러냈고 성실히 모은 전 재산마저 아낌없이 두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토록 금지옥엽 기른 형제는 노부모를 혼자서만 모실 수는 없다며 자주 다투었다. 이러한 자식들을 보면서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과 평안만을 위해 평생을 보낸 노부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식 키우느라 까맣게 태운 청춘이 서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결국, 평생을 한 몸같이 살아오신 노부부는 늙어 쇠한 몸으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각각 따로 살게 되었다. 서로의 건강이 염려스러워 자식들이 없는 틈에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외로움을 달랬고, 한 달에 한 번 짬은 약속을 하고 밖에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곤 하였다. 그렇게 애처로운 말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암으로 홀연히 먼저 떠나고 남겨진 할아버지는 더욱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였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나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차례로 떠오르면서 가슴 한 편이 저릿해지고 무언지 모를 가책마저 느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내게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친정 부모님보다는 삼십대에 홀로 되신 후, 옆도 뒤도 안 돌아보시고 오로지 당신의 삼남매 키우는 일에만 남은 생을 살아오신 시어머님 때문에 가슴이 더 아릿해졌다.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남몰래 가슴아파하던 시어머님 삶의 뒤안길이 저 노부부의 삶에 중첩되면서 묘한 아픔을 자아내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에서 특집 시리즈로 방영되던 공자와 유교 사상의 재조명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동안 인류는 산업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물질적 성장만을 좇아왔기에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동양사상이 다시금 재조명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특집 방송은 그 첫 번째의 중심에 ‘효’ 사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모르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하기 어렵고 좋은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나 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기 어렵지요’ 라며 ‘효심’을 사람살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세워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한 중국인부부의 인터뷰 내용은 결코 생경스럽지 않고 마음에 깊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손자, 숨겨둔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 등이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도대체 신이 지어주신 천륜마저 망각한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에 대해 망연할 뿐이다. 더구나, 불과 수년전만 해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신문에 대서특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경악스러움마저 땀땀해지면서 그저 하나의 사회적 현상과 흐름쯤으로 여기는 불감증의 위험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린 과연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 가족과 자식들은 과연 어찌 지키고 키워야 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실의 시대이고, 거기에 먹고 사는 일로 팽팽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에게 ‘효’란 정말 어려운 실천 명제임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사람다운 우리를 존재하게 한 전신세계와 철학이 있다면 ‘효’일 것이다. 그러므로 ‘효’정신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더욱 고무시켜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것이다. 생활에 쫓겨 사는 이유로 혹

은, 매일 같은 공간에 살기에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망각하고 살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 존재에 대해, 더 나아가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효' 철학의 프리즘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내 자식들에게 나중에 효도를 받기 위한 소극적 목적의 차원이 아닌,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 실천 추구의 신념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나는 분명 이 글을 읽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공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 너는 효도 잘하고 있느냐?’ 혹은 ‘내 염려 말고 너나 잘 하세요’ 라고……. 그렇다. 나 또한 예외 없이 여러 핑계 속에 자기합리화하며 ‘효’ 정신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항상 맘 한구석 죄책감이라는 종양덩어리를 달고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은 계기를 만나는 날은 이 종양덩어리가 특별히 더 아프게 저러오곤 한다.





원, 토요체험학습(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방과 후 학습을 활성화하여 학습관리와 학습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통하여 BBS는 청소년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청소년 선도를 이끌어가는 봉사단체입니다.

2007년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위안 잔치 및 한마음 축제를 열어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공연, 우수 청소년 표창을 하였고, 즉석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등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하였고, 6월부터 9월까지 자아를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과정의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8월2일~4일까지 청소년 문화탐방 캠프에서는 피서 및 여행을 못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 역사문화 투어 프로그램과 병행 실시하여 자아정체감을 갖게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회원들과 직원여러분께 부모의 입장에서 감사 드리며,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글 | 김춘원 명예기자



대상 청소년과의 자매결연



자아를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순찰



청소년 하계수련캠프 레프팅



어려운 청소년 돕기 바자회

「공주문화」는 공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양준모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충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부위원장을 만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더욱 분발하라는 賞, 최선을 다하겠다”

양준모 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대상 기초의원상’ 수상



지난해 5.31선거에서 의회에 입선한 양준모 의원은 초선의원답지 않은 의회 활동을 펼쳐 주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준모 의원은 지난 7월9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내 12개 시·군은 고문변호사를 1~2명 위촉하고 있음에도 공주시는 3인 이내로 고문변호사 수를 한꺼번에 확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1인 증원으로 인한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을 10월에 개최될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양 의원은 “90일후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데 홈페이지가 충남도와 부여군에는 설치되었는데 공주시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깨끗한 공주시 행정을 위한 환경에 대해 “쓰레기봉투 사용이 50~60%정도로 시민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이동식 카메라 투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투기를 원천봉쇄해야한다”며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애용하는 중요한 시설인 비상급수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눈과 비가 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고도제한 완화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로 재건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월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주시의회 양준모 의원이 ‘의정대상 기초의원상’을 수상했다. 양준모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준모 의원은 공주시 상인연합회 시장발전 특별위원장, 공주시 인라인스케이팅 연합회장(현),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현), 공주시 재향군인회 이사(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부회장(현), 공주문화원 운영위원(현), 법무부 공주교도소 교정위원(현),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자문위원(현), (사)충남곰두리봉사회 공주시지회 상임이사(현), 공주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공주교육청 교육복지정책협의회 위원(현), 충남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위원(현), 공주교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공주고등학교 54회 동창회장(현),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총동창회 부회장(현)을 맡고 있다.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

이충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부위원장



“이충열 의원은 지난해 5.31 선거에서 제5대 공주시의회에 입성했다.

7월1일로 일년간의 의정생활을 밝히면서 그는 “취임선서를 할 때 시민의 대변자, 지역 일꾼으로서의 부끄럼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나 정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의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활동,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질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충열 의원은 2007년 7월 9일부터 개최된 제107회 제



1차 정례회 본회에서 “신풍비행장검사소 유치로 연간 약 150여억원의 경제파급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업유치가 추상적이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유치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촌간이상수도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을 지적, “농촌간이상수도시설 관리가 허술해 소독, 비상시대처, 수질문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관리 요청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오지마을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마을버스와 저상 버스를 도입해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시민교통의 적자노선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업주의 도덕적 문제나 퍼주기 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은 축산농가가 많은 것에 비해 공수의가 부족한 상태로 브로셀라 검증 및 예방접종시 농가 고령화로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종축개량 소홀로 축산업이 붕괴위험에 있으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문가를 활용, 종축개량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대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FTA타결로 어려워진 농촌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시는 공주대 교명변경문제, 한·미FTA문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행정도시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 주민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황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충열 의원은 (사)한국농업경영인 공주연합회장, 국민중심당 충남도당 정책자문위원(현), 공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행정분과 위원장(현), 공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현), 충남발전협의회회원(현), 공주연기축협 경영평가 심의위원(현), 충남도정평가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이사, 농촌진흥청 농촌현장자문위원, 공주시정평가위원, 농업기반공사 공주지사 영농규모화 심의위원, 공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 심의위원, 공주시 4-H연합회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신용희 명예기자

공산십경시(公山十景詩)



백 원 철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예로부터 어느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읊을 때 흔히 팔경(八景)이나 십경(十景)을 거론하여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공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찍이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공주십경(公州十景)이 있고, 이어 죽당(竹堂) 신유(申濡, 1610~1655)의 공주후십경(公州後十景)이 있다. 이들 시는 「여지승람」이나 읍지(邑誌)등에 이미 소개된 바 있거니와, 「공산십경(公山十景)」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본 공산십경을 지은 이는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이다. 공은 동부승지로 재직하던 중 효종 2년 겨울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케 되었던 바(1651년, 50세), 이는 당시 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대동법(大同法)을 충청도에 실행 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공이 발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공산십경시는 공의 충청도 관찰사 재임시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첫 수는 역시 금강의 봄놀이(錦江春遊)를 읊은 것이다.

희미한 안개 속에 버드나무 물기에 무성하고
비 갠 뒤 맑은 강엔 옥 같은 푸른 물결
가득 태운 아리따운 사람들 노래 소리 높으네
춘풍은 불어서 목란돛배 멀리 보낸다네

依微烟柳暗汀洲 雨後清江碧玉流
滿載紅粧絃管沸 春風長送木蘭舟

(鶴洲全集, 卷五, 七, 錦江春遊)

위 시는 봄날 금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를 즐기는 이들의 흥취를 압축하여 그려낸 것이다.



여기에 참고로 200년 전 같은 제목으로 지었던 사가의 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갓 씻는 금강변에 사방천지 봄인데
 2~3월의 날씨는 기온도 선선하여 좋구나
 옥항아리에 술 담아들고 숲속에 찾아드니
 더딘햇살 따뜻한 바람에 정신마저 빼앗기네
 비 그친 뒤 불어난 강물 금빛 포도주 빛깔인데
 목난 돛배 마음대로 저어 이리저리 노니노라
 살구꽃 그림자 질 때 취하여 돌아가노라니
 옥피리 한 곡조에 산위로 달이 솟았구나

濯錦江邊天地春 二月三月天氣新
 玉壺沽酒尋芳菲 遲日暖風惱殺人
 晴江新漲金葡萄 蘭橈隨意移畫舫
 杏花疎影醉扶歸 玉笛一聲山月高
 (四佳集, 詩集, 補遺三, 七, 錦江春遊)

이를 보면, 학주의 시는 대체로 간명(簡明)함이 돋보이고, 사가의 시는 상대적으로 섬부(贍富)함이 느껴진다. 시 형식에서도 전자가 7언 절구인데 비해 후자는 고시 8구로 된 것에서도 작자의 취향이 드러난다고 보겠다. 다음 둘째 수는 월성산의 가을흥취(月城秋興)를 읊은 것이다.

강변에 서리내리니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고
 한가한 날 가마 매워 산 위로 오르네
 잔치 끝나자 겹겹 산중에 춤과 노래 흩어졌는데
 아리따운 기녀들 다투어 국화 꽃 꺾고서 돌아온다네

江天霜後鴈南飛 暇日肩輿上翠微
 宴罷重巒歌舞散 佳人爭插菊花歸
 (鶴洲集, 卷五, 七, 月城秋興)



공주의 수령들은 가을철 달 밝은 밤이면 월성산에 올라 술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는 풍류를 즐겼던 듯, 사가(四佳)의 경우 같은 제목의 시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바, 곧 “국화 가득 꽂으니 모자가 기울듯 한데, 술 마시며 시 짓기를 어찌 사양하리오.(黃花滿插帽欲欹 鯨吞虹吐安足辭)”라고 읊었다. 다음 제삼경시(第三景詩)는 곰나루의 밝은달(熊津明月)을 읊은 것이다.

사람드문 저녁 나룻터에 저녁안개 짙은데
달빛과 물결색깔 위아래 한가지로 빛나네
기너태운 돛배는 거울 같은 물결위에 떠돌고
잇달은 기악소리 강바람에 실려가네

人稀官渡暮烟籠 月色波光上下通
妓舸沿回明鏡裏 紛紛絲管雜江風
(鶴洲集, 卷五, 七, 熊津明月)

차례로 이어지는 학주의 공산십경은 제4경 계악한운(鷄嶽閑雲)으로부터 동루송객(東樓送客), 서사심승(西寺尋僧), 삼강창록(三江漲綠), 오현적취(五峴積翠), 금지함담(金池函菡), 석옹창포(石甕菖蒲)등으로서, 서사가의 공주 십경(公州十景)과 그 제목이 동일하다.

반면에 동시대 인물인 죽당(竹堂)이 4년전에 지었던 공주후십경(公州後十景)시는, 시형식을 7언 절구체로 학주와 같은 형식을 취했으나, 시제(詩題)는 전혀 달리한 점이 특이하다. 예컨대 ①동월명대(東月明臺) ②서월명대(西月明臺) ③정지사(艇止寺) ④주미사(舟尾寺) ⑤영은사(靈隱寺) ⑥봉황산(鳳凰山) ⑦공북루(拱北樓) ⑧안무정(按舞亭) ⑨금강진(錦江津) ⑩웅진도(熊津渡)등이다. 주로 유적을 중심으로 회고적이며 정적인 정취를 읊은 것이 특징인 반면, 사가나 학주의 경우는 인간과 자연이 교환(交歡)하는 현재적이며 동적인 정서를 더 표출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마지막 제 십경시는 돌로 만들어진 물통에 자라난 청포(石甕菖蒲)를 읊은 것이다. 이 물통은 원래 백제 성왕(재위, 523~554)때 세운 대통사(大



通寺, 공주 반죽동에 터가 남아 있음)에 있던 것으로서, 크기가 직경 1,85m 높이1.1m에 달하며 모두 2개가 남아 전해온다고 한다.(공주군지, 1957)

나라 망한지 천년 옛자취로 남았는데
창포 새잎 자라 바람에 흔들거리네
아릿다운 소녀들 앞꺾어 치마 띠로 두르고
단옷날 좋은 절기 그네 뛰러 달려가네

國破千秋古迹留 蒲生新葉弄輕柔
佳人摘取爲裙帶 爭趨端陽令節遊

(鶴洲集, 卷五, 八, 石甕菖蒲)

학주 김공은 남달리 공무처리가 정대하고 성품도 강직했던 듯하다. 공이 삼품(三品)으로서 차 상급 품계인 관찰사를 제수 받은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니와, 실제로 이곳 충청도에 부임해서는 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과감하게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민생을 구원하는 선정을 베풀었다. 1년 남짓 재임타가 가을에 우부승지로 전직하여 상경하였으며 다음해 홍주목사를 지냈다. 이어 효종 5년(1654, 공 53세) 5월에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이해 여름 심한 가뭄이 들자, 조정에서는 널리 좋은 대책을 구하였는데, 이 때 공은 소현세자 비인 강빈(姜嬪)과 그 어린 왕자들이 억울하게 죽게 된 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올렸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왕 효종이 이미 앞서 “만약 이 사건을 언급하는 자는 역모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런데도 공은 강직한 성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소를 올린 것이었다. 이에 효종은 공의 상소를 접하자 격노하였고, 가혹하게 국문하여 의금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후 5년이 지나 신원되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문정(文正)의 시호가 내려졌다.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6)

장길수

__봉황중학교 교장
__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__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풍수와 땅이름(5)

오행(五行)과 땅이름

오행(五行)도 땅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양의 4대문이다. 아래 표와 같다.

▷오행과 한양 4대문 이름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方神	靑龍	朱雀	黃龍	白虎	玄武
五色	靑色	赤色	黃色	白色	黑色
五氣	春	夏	四季	秋	冬
五德	仁	禮	信	義	智
都城門	興仁之門	崇禮門	善信閣	敦義門	昭智門

▶ 주봉(朱峯 : 이인면 주봉리)

주봉(朱峯)은 이인면 주봉리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의 흙빛이 유달리 붉어 주봉(朱峯)이라 불린다고 한다.

풍수에는 사신사(四神砂)가 있는데

이는 혈을 중심으로 네 방위를 수호하는 신으로 보통 무덤 주위를 감싸고 있는 4 방위의 산세를 말한다. 이를 현무(玄武-北), 주작(朱雀-南), 청룡(靑龍-東), 백호(白虎-西)라 한다. 이중 현무는 주산(主山)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이나 도시의 경우 진산(鎭山)이라고도 한다.

주작(朱雀)은 안산이라 불리며 혈이나 마을의 앞쪽에 자리 잡고 있다. 명당은 일반적으로 남향이 많으므로 이를 기준하면 주작은 남쪽의 신(神) 또는 산을 의미한다.

풍수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봉(朱峯)은 공주 관아(官衙)로부터 남쪽에 있는 산이란 뜻도 된다.

간지와 지명

간지(干支)는 보통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라 부르는데 십간(十干)은 천간(天干)이라 하여 하늘을 나타내며 이는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이다. 십이지(十二支)는 지지(地支)라 하며 땅을 상징하는데 이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辛 酉 戌 亥이다.

간지(干支)도 때때로 땅이름으로 쓰인 예가 있다.

▶ 정지방(正子方 : 금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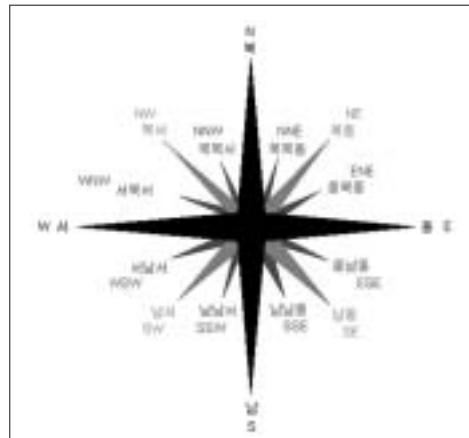
정지방은 금성동 공주중학교 뒤편, 정지산 아래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정지방(正子方)'의 '자(子)'는 십이지(=地支) 중의 첫 번째로 북쪽 방위를 나타낸다. 흔히 자방(子方)으로 불린다. 시간으로 표현하면 자시(子時)라 하는데 보통 자정(子正, 밤 12시)이라고 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 십이지신으로는 쥐를 뜻하며 흔히 쥐띠라 한다.

땅이름으로서 정지방(正子方)의 의미는 '정북쪽 방위'를 뜻한다. 이는 이 마을이 옛 감영터(현 사대부고)에서 정북쪽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땅이름이다. '정지방' '증지방이'라고도 불린다.

참고로 지도에서 사용하는 방위와 풍수에서 사용하는 방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 사이의 같은 점은 8방위까지는 같은데, 지도에서는 8방위 다음에 16방위로 표시하지만 풍수에서는 12방위 또는 24방위로 표시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풍수에서는 흔히 12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4방위도>



<16방위표>

출처: <http://blog.naver.com/kozillalyj>

▶ 진두교(辰頭橋 : 공주시 계룡면)

계룡면 소재지 입구(공주쪽)에 진두교(辰頭橋)라는 다리가 있다. 진(辰)은 지지(地支)의 다섯째 이름으로 동물로는 용을 의미한다. 땅이름에 많이 나오는 두(頭)는 첫째로 동물 형상의 머리를 나타낸다. 용의 머리를 닮아 용두(龍頭), 소의 머리를 닮아 우두(牛頭)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어느 곳의 첫머리 또는 입구를 나타낸다. 이는 성의 앞쪽을 성머리(城頭)라 한다든가, 돌이 쌓여 있는 앞쪽을 돌머리(石頭)로 부르는 경우이다. 따라서 진두교의 진두(辰頭)는 용의 머리란 뜻으로 계룡산의 들머리(입구)에 있는 다리란 뜻이다.

다리 이름은 마을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두교란 진두마을에 있는 다리를 일컫는다. 진두(辰頭)라는 땅이름은 계룡면의 옛 이름이다. 지금의 계룡면 지역은 1914년 군면(郡面)이 통폐합되기 전에 익곡면과 진두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갑사에서 경천에 이르는 곳이 익곡면이었고, 봉명 월암 유평 일대가 진두면이었다. 지금은 진두면이란 이야기는 계룡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다리 이름에 옛 땅이름이 그대로 전해 내려와 그 내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땅이름을 언어의 화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옛날에 역이 있었던 곳이 '역말', 창고가 있었던 곳이 '창말'이란 땅이름으로 남아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타 풍수 관련 땅이름

▶ 문필봉(文筆峯 : 계룡산)

풍수적인 용어로 문필봉이란 봉우리가 글씨를 쓰는 붓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공주의 대표적인 문필봉은 계룡산 관음봉에서 연천봉 사이에 있는 4개의 봉우리를 일컫는다.

문필봉은 풍수적인 보통명사이다. 그래서인지 문필봉은 별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풍수가들에 의하면 붓은 문(文)을 상징하므로 문필봉이 정면에 있으면 학자와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래 이름보다 문필봉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지 모른다. 공주 곰나루 북안의 연미산(燕尾山)이나 서혈사 터가 있는 망월산(望月山)도 문필봉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전국적으로 문필봉이란 봉우리가 수없이 많은 까닭이다.

계룡산의 문필봉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련봉(四連峯)이라 불렀다. 4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나란히 붙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형제처럼 다정한 사련봉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문필

봉으로 정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풍수적인 보통명사에서 나온 문필봉보다 원래 이름인 사련봉(四連峯)으로 환원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 우와리(牛臥里 : 계룡면 기산리)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소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 농촌 지역에서 재산 목록 1호인 시절이 있었다. 따라서 집터나 산소 자리도 소의 형국을 좋아했다. 그래서 누운 소 형국인 와우

형(臥牛形)은 마을이나 집터의 형국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다. 묘지 풍수에서도 소의 형국은 그 자손이 부자가 된다고 하여 선호하였다.

계룡면 기산리에는 소와리라는 땅이름이 있다. 한자로는 우와리(牛臥里)로 표시 한다. 뒷산이 누운 소 모양이라 붙은 땅이름이다. 보통은 와우(臥牛)라고 부르는데 이 곳은 특이하게 우와(牛臥)로 불린다.

소와리 마을 앞에는 우와교(牛臥橋)라는 다리도 있다.



갑사에서 본 문필봉(사련봉)과 연천봉(오른쪽), 2007. 6. 17

아기자기한 추억 속으로

닥종이 종이접기



닥종이의 유래와 용어

닥나무 종이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으로 신라 종이의 귀중한 유산이다. 닥나무종이는 하얀 빛깔이어서 일찍이 ‘백추지’라고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 역시 그 명성이 대단했다고 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대방광불화엄경” 신라저지의 기술적 바탕위에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고려시대는 고려지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송·원나라 등 중국에서는 제왕의 전적을 기록하는데 사용했을 정도로 “섬세하며 희고 빛이 나며 매끄러운” 고려지의 품질은 훌륭했다. 이러한 고려지는 중국인들 사이에 가장 질 좋은 종이로 각광받은 우리의 닥종이다.

강좌소개

일주일에 두 시간을 준비하지만 시간은 무한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닥종이의 준비물은 한지와 신문지, 피복선, 붓, 밀가루풀(도배하듯 집에서 풀을 쭈워 와야 한다).

처음 닥종이를 대하려면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인형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소품은 각종 과일, 꽃, 과반, 가방같은 소품입니다.

인형제작은 테마가 있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전시효과도 매우 뛰어나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시회와 달력제작 등이 가능하다.





※ 공주문화원 닥종이 종이접기 강좌 안내

강좌시간 : 목요일 10시~12시

강 사 : 김 승 임

- 닥종이 초급 취득
- 닥종이 지도, 사범 자격 취득
-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향토사료

공주의 학교 정담情談 (3)



이 일 주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고,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대학원 졸업
저서 “현대교육의 원리”

조선시대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공주라는 지명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또한 목(牧)이라는 행정구역도 관직명만 달리할 뿐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1413년 전국 8도의 구획이 확정된 후 1598년(선조 31년)에 충청도 감영이 충주로부터 공주로 옮겨오면서 공주는 충청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공주는 충청도의 각 지역에 행정과 문화면에서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교육 또한 그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명칭만 다를 뿐 고려시대와 거의 같았는데, 관학으로는 국립종합대학인 성균관을 비롯하여 사학(四學) 및 향교가 주축을 이루었고 사학(私學)으로는 조선시대에 처음 나타난 서원(書院)과 고려때 창설되어 발전된 형태인 서당이 대표적이었다.

공주지역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설립된 학교 형태가 지금도 여러 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때 우리지역에 있었던 교육기관을 향교, 서원, 서당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이 글은 2002년 공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주시지 하권(下卷), pp. 167~255(제5편 제3장 교육)에 게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향교(鄕校)

조선시대에 설립된 공주향교는 공주시 교동 211번지에 현존하고 있다.

공주향교의 설치연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586년(선조 19년)에 공주목 제독으로 부임한 조헌(趙憲)선생에 관한 기록이 공주 향교의 중수기(重修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조대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기록 중에는 고려말 ~ 태조(太祖) 초기쯤 설립되었다는 기록(공주고등학교, 공주고 60년사, P. 32)도 있어 공주향교는 지금까지 추정해 온 것 보다 훨씬 더 일찍 설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동지여지승람에 의하면 공주의 향교는 ‘주(州)의 서북쪽 3리에 있는데 서쪽에는 옛 왕릉이 있다(在州 西北三里 西有古陵墓)’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원래는 공주 향교가 웅진동 송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는데 구(舊) 공산지(公山誌)등에 따르면 공산이씨 정란(廷蘭)과 그의 종제(從弟)인 대현(大賢)이 각기 14살과 10살의 어린나이에 토지를 헌납함에 따라 1623년에 순찰사 신감(申鑑)과 목사 송흥주(宋興周)가 주관하여 현재의 위치를 옮겨 새로이 건축하였다.

서원(書院)

조선시대 공주지역에는 사학교육기관인 서원도 적지 않았다.

당시의 서원은 향교와 같은 교육기능을 수행하던 사설 교육기관으로 1871년(고종 8년)대원군에 의하여 서원 철폐가 단행되기까지 공주의 행정구역내에 설치되었던 서원 중 지금까지 밝혀진 서원은 충현(忠賢)서원, 창강(滄江)서원, 명탄(鳴灘)서원, 도산(道山)서원, 부용당영당(芙蓉堂影堂), 문회당, 요당서사(寥塘書社), 돈파(豚坡)서사, 기호(岐湖)서사, 병엄(屏巖)서사, 운산(雲山)서사, 성봉(盛峰)서사 등이 있었다.

이 중 도산서원 등은 현재 대전등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서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소재지가 공주의 행정구역 내에 속해 있었다.

이 밖에도 당시에 서원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던 서재(書齋)등을 오늘날에 와서 문중(門中)이나 유림(儒林)들에 의하여 서원으로 복원된 예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881년(고종18년)에 문헌(文憲)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은 초려(草麗) 이유태(李惟泰)(1607~1684)선생을 향사(享祀)하는 왕촌리 소재 용문(龍門)서원이 있다.

서당(書堂)

서당은 고려시대에 창설되어 조선시대까지 수(數)적으로도 가장 많고 생명이 긴 사설(私設)교육기관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초기부터 역대의 왕들이 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곳곳에 사숙(私塾)을 설치하여 교육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당시 중부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공주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도 유구면 덕곡리와 유구2리와 의당면 청룡리 등의 여러 지역에서 서당골이라는 자연부락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안면 보물리에는 지금도 한말(韓末)에 서당을 직접 다녔던 인사(人士)가 생존해 있다.

공주에서 지금은 서당의 흔적을 상세히 찾기는 어렵지만 ‘강경(講經)골’, ‘서당골’(현, 금학초등학교 주변 일대)이라는 지역 이름이 전래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공주에서의 서당교육이 꽤 활발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당은 일제강점 후 신교육제도에 의해 설립된 공립보통학교(현 초등학교)에 반강제적으로 보내지게 됨에 따라 없어지게 될 때까지 존재하였었다고 하니 서당의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37년에 문천(文川)서당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간이학교를 두었다가 후에 월산국민학교가 된 예와 현 우성면 소재 귀산초등학교가 1941년 6월 「귀산 모범서당」을 인수하여 국민학교로 설립된 사실 등과 탄천면 가척리 왜말에 있었던 윤선생서당, 아랫말에 있었던 최선생서당, 그리고 60년대 초까지 존재하였던 같은 마을 윗말의 권선생서당과 65년경까지 운영되었던 탄천면 정티리의 서선생서당 등을 통하여 보더라도 이들 서당이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주지역에 꽤 많은 서당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공주에 소재하였



던 서당 중 가장 늦게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당은 사곡면 운암리 2구 생동에 소재하였던 윤선생 서당과 홍선생 서당으로 현대학교제도가 만들어 진 6.25이후인 50년대 초에 설립되어 약 10여 년간 운영된 예도 있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공주의 서당은 매우 오래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는 공주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서당이 의당면 두만리 119번지에 ‘공주도령서당’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공주도령서당은 남원에 있는 서당의 분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도 전형적인 서당의 내용과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당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훈장들에 의해서 서당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근대학교의 출현

개화기 공주에 처음 설립된 학교는 민족계 사립인 공주사립소학교였다. 이 학교는 민족계 사립으로는 충남에서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1883년의 원산학사(元山學舍) 보다는 15년 뒤의 일이며, 1895년 소학교령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나 설립된 것이다.

한편 1905년에는 공주에 처음으로 선교계 사립학교인 명설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듬해(1906년)에는 명설학교가 중흥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중흥학교는 1909년에 영명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의 영명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공주에 기독교 사립학교가 설립된 것은 우리

나라의 최초 근대학교인 배재학당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이른 시기에 창설된 것이다.

한편 1906년에는 일제(日帝)에 의하여 공주사립소학교가 강제로 폐지되고 공주의 근대 최초 관학인 공립공주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갑오경장(1895년)을 거쳐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이 성립된 후에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려는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찬탈하려는 정책으로 당시에 존립하였던 모든 서당이나 민족계 사립소학교를 철폐하고 관·공립학교를 확장하려는 정책을 펼쳤는데, 공립공주보통학교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일제의 교육침탈정책으로 개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공주중동초등학교 연혁지를 보면 1906년에 일제가 세운 공립공주보통학교가 학교의 전신(前身)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제가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교교육과 개화기 민족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에 의해 일제에 의해 그 당시 만들어졌던 학교 연혁지를 해방되면서 당해 연혁지는 없애 버리고 새로 만든 연혁지에도 별 생각 없이 일제의 기록을 그대로 베껴 써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주중동초등학교 역사는 18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쳐질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의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공주지역에서 근대 최초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공주사립소학교’와 ‘공주사립소학교’가 강제로 폐지되고 세워진 ‘공립공주보통학교’ 및 공주의 선교계학교 효시인 ‘명설학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공주사립소학교 : 공주중동초등학교 최초 전신(前身)

공주사립소학교는 1898년에 설립된 오늘날의 사립초등학교로 충남에서 처음으로 개교한 민족계 사립학교이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개화기에 마련한 새로운 학교제도가 국가적으로 마련된 지 3년 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1880년대에 오랜 쇄국정책을 버리고 여러 나라의 통상수호조약(通商 修好條約)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개화기에 돌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국가의 문호개방의 영향으로 여러 문물과 함께 서구의 학문과 지식 또한 물밀 듯이 들어왔고 초기에는 소수이기는 했지만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근대교육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1895년 2월에 고종(高宗)은 ‘교육초서(敎育招書)’를 발표하여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사학(私學)과 관학(官學)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896년 칙령 36호에 의해 전국을 13개 도(道)로 하는 새로운 행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주목에서 공주부로 개편되어 27개군을 관할하던 공주는 개칭된 충청남도에 속하여 도(道)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런 시기에 민족교육에 뜻을 둔 인사(人士)에 의해 세워진 학교가 공주 사립소학교이다.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공주로 낙향한 심기섭(沈驥燮)은 교육입국의 이념을 고향에서 실현코자 하였는데 학교설립을 위한 큰 돈이 없었다. 이에 당시 충청도 관찰사인 김가진(金嘉鎭)은 그의 사람됨을 보고 백원을 설립기금으로 내어 놓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심기섭은 1898년 11월에 전통적인 서당에 대신하여 처음으로 근대적인 사립소학교를 개설하였다. 처음에 이 학교는 충남관찰부(현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의 건너편에 있는 객사(현 공주중동초등학교)의 한 칸을 빌어서 사용하였으며, 심기섭 혼자서 가르쳤는데 학생은 30세가 넘는 장년 24명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을사조약 체결 후(1906년 보통학교령 공포) 소학교의 보통학교 개편에 따라 1906년 9월 1일에 공립공주보통학교(현, 공주중동초등학교)로 개편됨으로써 민족성 자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일제 식민지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고 말게 되었다. 이 학교는 불과 8년 밖에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공주사립소학교는 충남 최초로 공주에 세워진 사립학교로서 재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인정받았던 것 같다.

사곡면 호계리



충효사 전경

계유정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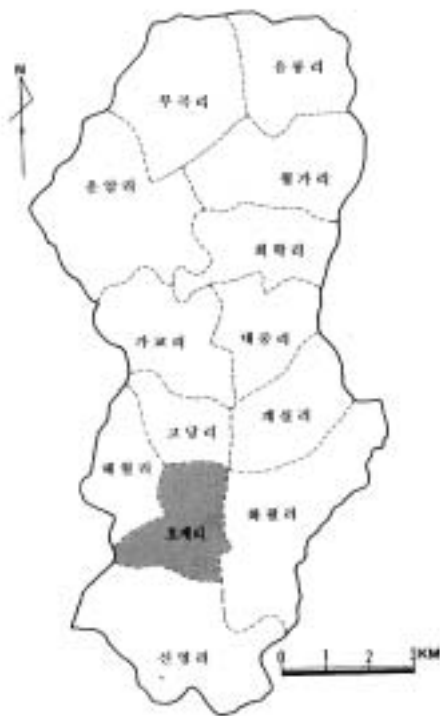
충절의 맥이 서린 곳

- 유구천변의 유구한 마을
- 호랑이가 인도한 강당골
- 작은 도회지, 범재
- 심승지지는 평화로운 웃음으로 남고

계유정난 총절의 맥이 서린 호계리

사곡면 호계리, 공주시내에서 32번 국도를 달리다 호계삼거리에서 629번지방도로 들어서면 사곡면의 면소재지인 호계리이다. 공주에서 13km정도의 거리이며 자동차로 15분이 소요된다. 호계리는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경계는 유구천이다. 유구천에 놓인 태화교(泰華橋)가 두 마을의 연결다리이다. 범재와 능계가 합하여 호계리(虎溪里)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다. 남쪽으

사곡면 호계리 위치도



로는 신영리, 동쪽으로 화월리, 서쪽에 해월리, 북쪽에 고당리와 접하여 있다. 호계1리의 가구수는 78호, 인구 206명, 호계2리는 181호, 461명이다.

유구천변의 유구한 마을

호계1리 강당골 남서쪽 만수동은 20호 규모의 마을이다. 만수동은 수목이 우거져 오랫동안 변함없이 변창한 마을이라 해서 만수동이라 하기도하고, 옛날 한 부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집을 지어주고 식량을 나누어주어 오래오래 같이 살아 만수동이라 한다는 말도 있다.

이 만수동 입구에 자리하고 고인돌 1기는 호계리 마을의 선사 이래의 마을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만수동 입구 이상훈 씨 댁 앞에 원형이 훼손된 고인돌이 있다. 살짝 경사진 곳 위에 덮개돌이 정마름모꼴의 형태인데 길이가 어느 쪽으로 줄자를 잴다 대도 대체로 260cm 정도이다. 바로 동편에 있는 지석은 한 개인데 길이가 200cm, 지면 위 노출부위가 60cm이다. 남서쪽으로 대어섯 걸음의 위치에 막음돌로 보이는 것이 100cm내외의 사각형형태로 누워있다. 지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언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동한 것 같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고인돌 바로 아래에 민묘 4기가 잡풀이 우거진 채 있다.

그런데 6~7년 전에 마을 골목길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면서 일이 생겼다. 덮개돌이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고인돌 몇 개가 북쪽을 받치고 있어서 살짝 들어 있었다. 포장 일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고인돌을 치우고 덮개돌을 한자정도 아래로 밀었다는 것이다. 고인돌은 어느 쪽인지 모르게 시멘트 포장 밑으로 감춰지고 말았다. 그러자 원래 무업(巫業)에 종사하는 민묘의 주인이 찾아와 소란이 일어났다. 고인돌의 흩어진 형태가 마치 장구·괘과

리·징·북 등 무구(巫具)와 같아서 중히 여겼던 것인데 포크레인 기사가 그만 훼손하고 말았던 것이다.

만수동 고인돌의 현재의 형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고인돌은 원래 북쪽에 많다는 탁자형인데 민묘를 조성하면서 그랬는지 덮개돌이 옆으로 이동하였다. 덮개돌은 몇 개의 작은 고인돌에 의해 한쪽이 들려 있다가 마을 골목길 포장공사시 고인돌이 치워지고 한자 정도 아래로 내려진 것이다. 덮개돌 위에 직경 3cm 정도 되는 성혈이 하나 있어 많은 상상을 하게 해준다. 탁자처럼 받치고 있는 두개의 지석 중 하나는 원래 위치에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곳으로 이



호계1리 고인돌 - 동쪽에서

동하여 알 수 없다. 막음돌로 보이는 것이 가까이 누워 있다. 그러나 탁자형과 바둑판형이 함께 있는 두개의 고인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석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유구천과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인돌이 하천과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고인돌은 유구천과 마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형세이다. 지도와 현지 지형을 함께 보면 풍부한 하천을 끼면서 그 하천을 방패삼고 구릉이 막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 두 하천을 이용하면 곧바로 금강으로 접어들고 나아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마을이 구릉성 취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인돌이 비록 형태는 원형이 많이 훼손됐지만 입지 면에서 만수동 지하에 당시 유적이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친 해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이천년 전의 멋진 고인돌을 그려볼 수도 있으나 이는 고고학적 과제이다.

호랑이가 인도한 강당골

호계1리 자연마을은 능계·새터·착사정·강당말·만수동이다. 이곳에서 진주 정씨 이야기를 빼면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설 같은 정씨 가문의 호계1리 정착이야기는 계

유정난으로 수양대군에게 화를 정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애일당(愛日堂) 정분(鄭芬, ?~1454)은 단종 즉위년(1452)에 김종서의 천거로 우의정에 오른 문신이다.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과 함께 문종의 고명지신(顧命之臣)이었다. 따라서 어린 단종에게 충심을 다한 것이다. 단종 원년(1453)에 진라·충청·경상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어 충주로 향하던 중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조치원에서 결박되어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가 사사(輝死)당했다.

1453년, 계유년에 수양대군(세조)이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어 문종의 당부로 단종을 지극히 받드는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실권을 잡은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한다. 또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이 왕위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하여 강화도로 귀양보냈다가 후에 사사(輝死)하였다. 이때 수양대군을 도와서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록되어 일생을 권력의 최상층에서 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정인지(鄭麟趾)(하동 정씨)가 있다. 정분의 첫 부인은 바로 정인지의 누이인데 일찍 세상을 등졌다. 그래서 새장가를 원주 변씨에게 들었다. 정인지와는 원래 처남 매부사이인데 서로 다른 길을 간 것이다.

정분은 부인을 두 번이나 맞이했으나 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변씨

충효사 제향장면



는 정분 사후에 당질(오촌)인 정지산(鄭之産, 1423?1469)을 입양하였다. 정지산은 1457년(세조 3)에 단종이 죽자 계룡산 동학사 삼은각 옆에 김시습(金時習)과 함께 설단하고 3년 복상하였다. 후에 세조가 이를 알고 떳떳이 제사를 모시라고 해서 현재까지 동학사에서 봄·가을로 두 번 지낸다. 본제는 단종을 모시고 동무에서 성삼문 등과 정분·정지산을 모시는데 매년 동학사에서 연락이 오면 문중에서 참석한다.

한편, 정분 사후에 집안이 연좌에 해당되어 몹시 긴박하였다. 이에 정분의 손자며느리인 여산 송씨(?~1529), 즉 정지산의 셋째 며느리가 홀로 아들 정윤침(鄭潤琛, 1481~?)과 가승(족보)만을 품고서 안성 땅에서 일단 지금의 공주 의당면 월곡리 요당서원(김종서 배향)있는 곳으로 피신한다. 월곡리에 정분의 별서(別墅)가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그곳이 원래 김종서의 고향이므로 서로간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요당도 안전하지 못하여 호계2

충효사 제향을 기다리는 공주유림들



리 꽃바위쪽으로 피하였다. 밤에 바라보니 반대쪽 유구천 너머에 불빛이 있어 건너려고 했다. 그러자 호랑이가 불을 밝히며 송씨를 등에 업고 강당말에 내려놓았다. 불빛 있는 곳은 古老寺라는 절이었는데 격식을 다 갖춘 절보다는 암자 한 채였다. 거기에 여승이 기거하고 있었으나 여승이 임자가 따로 있나보다 하고 비워주어 그때부터 진주 정씨의 터전이 되었으니 복지산 아래 강당골이다.

호랑이가 관련된 전설에서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우매한 백성일지라도 충신을 몰라 봤겠는가, 충신의 자손 피난길에 호랑인들 안도우라, 하는 민중의 마음이 전설로 남은 것이리라. 이후 정씨들은 자손이 번창하여 일대에서 제일 많은 씨족이 되었다. 처음 송씨 할머니가 기거하기 시작한 곳을 복지산아래 강당골이라 부르는데 현재는 송씨 할머니의 16대손인 정종현(62세)이 봉사손으로서 사당을 지키고 있다. 한 세대만이 살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가 업드린 형국 - 호계 2리 쪽에서



강당골 입구에는 정분과 정지산에게 내린 정려각이 있고 바로 앞에 두 그루의 아름다리나무가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다. 구부러진 길을 따라 약간 오르면 옛 고로사 터에 살림집이 자리한다. 원래 고로사를 살림집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년(甲子年, 1924)에 헐고 그 자리에 지금 집을 지었다. 문을 들어서면 동쪽에 살림집이 있다. 그 왼쪽, 즉 고로사 자리에 있는 건물이 송씨 할머니 이래 살아온 정씨네의 애환과 기쁨이 자리한 곳이다.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건물에 고로서원(古老書院)과 정모재(敬慕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문중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다.

고로사 터에 있는 살림집 바로 위에 두 채의 기와로 된 사우가 동서로 있는데 동쪽의 것은 의재문(義在門)을 출입구로 하여 담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 충효사(忠孝祠)가 있다. 그 바로 서쪽 옆에 같은 형식으로 의재문이 있고 안에 부조묘(不桃廟)가 있다. 사우의 서쪽 능선에 송씨 할머니를 비롯한 후손

들의 묘가 햇빛을 잘 받으며 자리하고 있다. 앞에 작은 못이 있었는데 최근에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크기를 늘려 제법 저수지 터가 난다. 아마 배산임수를 의식한 명당을 꾸리기 위함인 듯하다.

제사는 음력 삼월삼짇날과 정분의 기일(음 8월 19일)에 정지산까지 합해서 모신다.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가 삼월삼짇날이며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바로 그 삼짇날 아침 일찍 정씨문중이 부조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오전 10시 이후에 유림들이 충효사에서 제를 올린다. 기일에는 문중에서 부조묘에서만 제사를 지낸다. 문중의 재산으로는 강당골 앞에 펼쳐져 있는 논 50마지기과 일대 임야 수십정보가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옛집과 사우를 보살피는 재원이다.

원래 강당골은 10여호가 살았는데 정씨네와 나머지는 하인들이 살던 곳이었다. 해방이후 토지개혁 때 하인들에게 약간의 토지를 떼어 주고 정씨네 본가 한집만 남아 지금까지 이른다. 100여년 전만해도 일대는 한가하여 농계에 10여호가 살고 호계2리에는 불과 2호 정도밖에 살지 않았으며 전부 초가였다.



영규대사(?~1592]

僧兵大將 靈圭大師

임진왜란 최초의 승장(僧將)

이조 선조때의 고승, 승병장(僧兵將)으로 널리 알려진 영규대사(靈圭大師)의 俗世의 姓은 朴氏이며 본관은 密陽이고, 法號는 기허당(騎虛堂), 이름은 영규(靈圭)이다.

大師는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에서 태어나 휴정대사(休靜大師)의 門下에 들어가 승려가 됐다. 그후 공주 감사의 청련암과 금산의 보석사에서 수도를 하였으며, 선장(禪杖)을 가지고 무예를 익혀 그 재능을 따를 자가 없었다. 195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0여명의 僧兵을 거느리고 의병장 조현과 함께 이 해 8월 청주성을 수복하고, 이어 금산에 이르러 왜적과 싸우다 조현등 7백의사와 함께 장렬히 숨져간 인물이다.

대사는 임진왜란에 직면하여 승려로서 최초로 蜂起하여 흔들리는 국운을 바로 잡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이 팽배하던 때라 대사에 관한 기록과 전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임진년 7월 왜적의 수중에 있던 청주읍성

을 탈환코자 승도들을 이끌고 진군 해온 영규대사는 僧服을 즉시 變服토록 하고 청주읍성과 인근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아울러 방어사(防禦使) 이옥(李沃)과 윤경기(尹慶棋) 등의 거처와 잔여병사의 동정은 물론 작적계획을 알아오게 하여 이들과 함께 청주읍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대사는 또다른 승도들을 번복토록한 뒤 읍성안의 동정과 왜적들의 동태도 살피도록 했다. 또한 민심의 상태도 승도들이 직접 나아가 조심스럽게 염탐하여 다음날 저녁을 기해 일제히 성을 공략토록 하고, 승도들은 곳곳에 숨어 하루 낮을 쉬도록 했다. 역사방어사 이옥등에게도 전갈을 보내어 다음날을 기해 대사는 시문을 향해 진격하고 이옥 등은 사북방향에서 진격키로 하였다.

그러나 방어사이옥과 졸병들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도망치고 대사와 승도들만이 무심천을 넘나들며 왜적들을 공략하였다. 그후 며칠동안 승도들의 공략은 집요하게 계속되어 숭한 적병들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숫적으로 열세한 승도들의 사상자도 늘어나 약전고투 하던 차에 趙憲의 의병들이 청주



영규대사 묘 충청남도 기념물 제15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소재

에 도착하여 결국 영규대사와 합동작전으로 8월 1일 청주읍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같이 청주읍성을 탈환은 영규대사와 그를 따른 승려들의 공노가 컸음은 두말할필요도 없거니와 또한 청주에 주둔한 왜군을 격퇴시킴으로써 향토호서방어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서 대사와 승도들은 증봉 조현과 함께 청주성 수복 이후 금산으로 진격하였다. 의병장 조현이 금산의 적을 치고자 할때 대사는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결국 함께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영규대사는 왜적의 조총에 옆구리를 맞아 쓰러지게 되었으나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빠져 나오는 창자를 손으로 틀어막고 지원병을 요청하고자 공주감영을 향하여 달렸다. 금산에서부터 경천을 지나 월암리에 도착했을때 그는 무릎을 꿇고 최후를 마쳤으니 이 어찌 슬픈일이 아니겠는가(그곳이 바로 오늘의 계룡면사모소 앞에 세워진 비각속의 사적비가 서있는 곳이라 하니,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수 없다.)

대사는 憂國忠貞의 발로로 나라가 임진왜란에 휘말릴때 그 초기의 기선을 잡은 승병장으로, 또는 최초의 승병을 蜂起시킨 인물

로서 높이 평가되며, 송유억불(崇儒抑佛)의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오직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僧兵을 양성시킨 有備無患의 정신과 강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는 어느 위인에 비겨도 뒤질 바가 없다.

처음에는 금산의 증용사에서 배향하였으나 뒤에 범도 대인들이 각을 군남 진약산서 쪽 기슭에 세우고 그의 영정을 안치하여 의선(毅禪)이라 하였으며 비를 세워 그의 사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금산의 칠백의총(七百義塚)에도 대사의 영령을 모시어 그의 충절을 크게 현창하고 있다.

현재 계룡면 유평리 산5번지에는 國?唯一의 승려무덤인 대사의 묘소(지방기념물 제15호)가 있다. 앞서 말한 계룡면 월산리에는 비각이 있고 갑사의 영정이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영정과 함께 봉안되어 있으며 대사의 업적을 널리 기려 본받고자 사적 현창회에서는 매년 8월 26일(음력)에 대사의 묘소에서 추모제향을 지내오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것은 당시 대사를 따라 금산싸움에서 장렬히 신화한 그 숭한 승병들의 넋을 위로할 길이 없으니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충정을 기리는 방법은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길이 없다.

공주시청 전경

소비지향적 公州를 일약

생산기반적 都市로 전환

이준원 공주시장 민선시정 1년 결산



이준원 공주시장

‘힘찬도전! 위대한 공주’란 시정구호 아래 민선4기 공주시정을 이끌어 온 이준원 공주시장은 공주를 소비 지향적 도시에서 일약 생산기반 도시로 전환시키면서 공주시를 충남의 핵심도시로 발돋움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7월 3일, 13만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공주시의 수장에 오른 이준원 시장은 풍부한 이론지식을 행정전반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지역 곳곳에서 발전을 향한 활기찬 용트림이 전개되고 있다.

경전파종(耕田播種)의 마음으로 전개된 이준원 공주시장의 발전프로젝트는, 5도2촌 주말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전개,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도시 육성, 복지환경 개선, 풍요로운 농촌 육성,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전개 등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란 슬로건 아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5都2村 주말도시 조성사업은 사곡면 부곡리 등 24개 시범지역에 숙박촌과 체험장, 주말농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농촌문화 체험과 함께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천·신평·정안 등에 122만평의 6개 산업단지과 30만8천평의 5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제정 등으로 기업 지원과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신평 비행장치 지정

검사소와 충남발전연구원, 3천억원 규모의 경호안전교육원 유치,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자카드기술지원센터에 49억원을 지원하고 간부공무원 기업현장 방문제를 통해 애로점을 해소해 왔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565억원이 투입된 옥룡~태봉간 동부간선도로의 완전 개통에 이어 158억원이 투입된 신관중앙로 개통, 공주대교~공주대간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전개, 291 억원으로 9개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공주대교~중동사거리 및 일번지상회~공주법원 간 전선지중화사업 전개, 35억원으로 산성동 KT자리 및 옥룡동·신관 한우타운·대학로 부근에 5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을 위해, 한국공연예술연수원과 석장리박물관·농업박물관의 개관에 이어 금강콘도미니엄 건립사업의 연내 착수와 금강 수상레포츠의 활성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조성, 정안 프린세스 골프클럽 개장에 이어 사곡·정안 화봉 골프장을 유치하고 제53회 백제문화제를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 개최해 글로벌 문화축전으로 격상시키며 2010년 대백제전을 기획하면서 고틀루유원지에 황토온돌방 체험 숙박촌을 건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본청 및 17개 읍·면·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고 지난 해 10월 복지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금년 4월과 5월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했으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금학동 생태공원 조성, 제민천 가꾸기사업, 제민천 유지용수확보사업을 전개하고 유구천 및 정안천 정화사업 추진, 우성면 상서리를 비점오염삭감시설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해 오고 있다.

풍요로운 농촌육성을 위해 관내 3개 마을을 농촌장수마을로 육성하고 우리밀 특화산업 전개와 관내 13농가 40품목에 농산물사이버장터인 「이지팜」을 운영하며 농기계 순회수리·농기계 대여은행·농촌들판의 농기계 119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주요 역점 10개 사업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통합증명발급기 보급과 함께 농번기 들판민원제 및 여권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공주 u-City 사업추진과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에 이어 금강둔치체육공원을 리모델링하여 풋살경기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종합체육시설의 재배치와 월미통 시민테니스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책의 일환으로 신관·금홍·금학·월송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과 중부권 광역상수도 설치, 공주시민의 염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 유치는 현재 13만명의 공주시 인구를 향후 20만명으로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해 충남의 거점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행정서비스현장 전국우수기관 선정

공주시가 행정서비스현장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주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서비스현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준원 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행정서비스 평가는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평가된 것으로 역량 및 이행기준 등 5개 분야의 이행실태 평가와 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분야의 고객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졌다.

공주시, 불우이웃돕기 4년 연속 최수우상 수상



공주시가 불우이웃돕기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해 총 5억4천여만원을 모금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05년 모금액 4억9천여만원 보다 5천여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

한편, 이 날 포상식에서 신관동 통장단 이기용(남, 65세) 협의회장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로 충남도지사 표창을, 산성동 노점상회가 지속적인 이웃돕기 실천공로로 공동모금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에서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반대서명서를 받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가칭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변 지역이 포함되는데 대하여 공주시의 시세 위축과 세수감소, 주변 지역에 소재한 주요기관 등 주변 지역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예정 지역 보다 월등히 많은 주변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공주시의 입장, 주변 지역이 편입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효과를 차단하여 개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블랙홀 현상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법률이 시행되면 그 기간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적시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과 법적지위는 공주시와 주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법률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거나 전체 시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편입 예정지역내의 토지공시지가가 2007. 5. 31 현재 1조 6천억 원이며, 관할구역의 상실 및 공주시민의 시세위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점과,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 제한행위를 완화하고, 공주시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제한행위 해제를 법률로써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서명서에는 법률안이 발표된 5월 21일 이후의 짧은 기간동안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받은 3만여 명의 반대서명서를 첨부하여 공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공주시가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집수리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집수리 자활공동체인 '좋은 건축'에 의뢰해 전개하는 집수리사

업의 내용은 도배를 비롯 장판교체, 지붕수리, 채양설치, 방한시설, 보일러설치, 싱크대 설치 등등.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에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편모가정 등에 안락한 휴식 공간을 안겨주고 있다. 1가구당 120~150만원씩 투입되는 집수리사업은 대상가정 150세대 중 40가구에 대해 완료했다. 나머지 110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고객만족 차원에서 Yes call 서비스제 시행

공주시가 고객만족 및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Yes call 서비스제를 시행한다. 공주시는 6월 29일, 민원전화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중한 자세로 대함으로써 민원인에 최고의 만족을 안겨주는 Yes call 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Yes call 서비스제란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최초 응대에서부터 업무 응대, 마무리 응대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만족을 안겨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시가 이 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민원사항 등을 문의하기 위해 일정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불성실한 답변과 전화 되돌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Yes call 서비스제 도입으로 공주시 공직자들은 상세한 답변과 함께 미처 답변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민원인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내용을 알려주는 콜백(Call back) 서비스까지 전개하게 된다.

공주시의회 제1회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지난 7월 6일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가 의정발전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종합대상과 의정발전, 지역발전, 의회역량부문으로 구분해 서류심사, 전문심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고의 점수를 받은 의회가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공주시의회는 '의정발전부문'에서 으뜸으로 평가되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1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가 의정발전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반포면 주민자치센터' 개관

반포면 공암리 375번지 반포면사무소 3층에 마련된 반포면주민자치센터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7.9㎡(32.7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완공됐다.

6월 22일 오후 3시 반포면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이준원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부의장, 오세희 반포면장과 관계공무원, 반포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 개소를 축하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추억의 錦江橋

1932년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는 동안 추억의 다리 금강교에 사피니아와 나팔꽃이 만개했다. 5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한 2천본의 사피니아와 1천본의 나팔꽃은 514 M의 다리전체를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사피니아와 나팔꽃은 아침햇살에 아름다움을 더해 공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다년초인 사피니아와 나팔꽃은 오는 9월말까지 만개해 아름다운 꽃을 선보인다.



제1회 무령왕릉 현공다례 행사 성황 차시음회와 차문화 간담회도 열려



공주대 평생교육원 다도회, 효정다도회 공동으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관우) 다도회는 공주 효정다도회와 공동으로 6월 9일(토)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 사적지에서 제1회 무령왕릉 현공다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과 조상에게 다과를 올려온 현공다례의 전통에 따라 제25대 무령왕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게 된다. 현공다례는 향, 등, 꽃, 쌀, 과, 차 등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가의 여섯 가지 공양물을 공양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현공다례에 이어 참여회원들의 명상차 시연회가 열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하는 차시음회와 차문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도 베풀어졌다.

공주시 보건소

활기찬 노후생활 가꾸기 전개 큰 인기

공주시보건소가 6월 11일부터 이인면 이인리 등 관내 10개 노인회관에서 전개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가꾸기사업에는 60세이상 노인이 30~40명씩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로 건강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다. 마을 노인들은 매주 2회씩 마을회관을 찾아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시니어로빅과 댄스스포츠, 노인건강체조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전·후에 혈압·혈당 체크, 체지방분석, 신체계측, 우울증검사 등을 해주고 있어 노인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다. 市 보건소가 이 사업을 전개한 것은 공주시 관내 노인인구가 지난 해 말 기준 2만 400명으로 전체인구 12만9천800여명의 15.7%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개장



공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웅진동에 위치한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을 7월 1일 개장하였다. 시 관내 어린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은 오는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된다. 시는 어린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샤워시설을 비롯 세족시설, 음수대, 탈의실, 그늘막 등의 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1천820㎡의 면적 위에 들어선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은, 607㎡ 크기의 풀장에 워터슬라이드, 탈의실, 지압보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이용대상 : 5세~13세
*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
* 5~7세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행

공주시 강북도서관
**“신나는 여름방학 책나라로 여행가자” 주제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주시 강북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도서관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50명이 참여하는 ‘신나라 여름방학 책나라로 떠나자’란 주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 백제역사에 대한 독서 및 글쓰기를 지도하는 ‘테마 독서지도’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은 초등학교 3~6년생에 ‘한지를 이용한 생활소품 만들기’를 운영한다. 이어 8월 3일과 10일 2일간은 초등학교 3~6년생에 독서토론 후 신문으로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신문 만들기’를, 8월 11일에는 초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래동화 연형극’ 관람의 시간을 주어진다. 공주시 강북도서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학생을 도서관 홈페이지(www.glib.go.kr)에서 받으며 접수는 7월 10일부터다.

금강뉴스 창간1주년 기념식



정재욱 문화원장,
 정덕기 충남역사문화원장,
 윤여헌 본사 고문,
 신용희 발행인,
 이해준 공주대 교수

공주의 대표 지역신문 금강뉴스(신용희 대표)가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6월 18일 공주문화원에서 공주시의회 의장, 오병주 부장검사 정재욱 문화원장등 공주시 주요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식을 가졌다.

제5회 상철상 시상식 개최



제5회 상철상 수상자 인애(仁愛) 부문에 우제영(공주중동 천주교회)씨, 의용(義勇) 부문에 공주시 인명구조대(대장 최영동), 신의(信義) 부문에 현대수(공주문화원)사무국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7년도 제5회 상철상 시상식 6월 16일 공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애부문의 우제영씨는 지난 60년대부터 공주교도소의 재소자, 국립결핵병원의 환자들에게 전교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어려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왔다. 특히 행려병자를 염습하는 등 남다른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또 의용(義勇)부문의 공주시 인명구조대(최영동 대장 대표수상)는 1992년 창단 금강을 중심으로 긴급구조활동 등 인명구조활동을 펼쳐왔으며 금강변 오폐물수거 및 수중정화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주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5都 2村 선도마을 정안면 고성리(풀꽃이랑마을)

농촌체험의 신실 체험관 준공



이날 체험관 준공식에 앞서 풀꽃이랑 마을은 이준원 시장과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모비스 서부지원팀(서울, 인천, 경기, 천안·아산지역 관할)과 1사 1촌 자매결연식을 갖고 농산물직거래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주시의 5도 2촌 선도마을인 정안면 고성리 풀꽃이랑 마을이 농촌체험의 신실인 체험관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갖었다.

풀꽃이랑 마을(이장 한동길)은 지난 6월 8일 마을회관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유상호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장, 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관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식을 갖는 체험관은 자매결연사인 농협IT전산분사 안성센터(소장 김기봉)와의 활발한 활동 속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한 3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4천400㎡의 연면적 위에 400㎡ 규모의 단층 건물로 완공되었다.

건물 내부에는 콩가공체험장과 황토방, 세미나실, 식당 등의 시설을 구비했으며 외부의 넓은 면적에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과 정원,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다.

공주시, 텔런트 임혁 씨에 명예시민증 수여

텔런트 임혁 씨가 공주시 명예시민이 됐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6월 28일 오후 7시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에서 있었던 텔런트와 함께하는 5도2촌 주말도시 현장에서 텔런트 임혁 씨에 제10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임혁 씨는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K.B.S 인기사극 대조영에서 대중상 역으로 맹활약 중이다. 명예 시민증을 수여받은 임혁 씨는 “공주시 명예시민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백제의 고도 공주시 홍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주 어린이교통공원 개원, 우성면 도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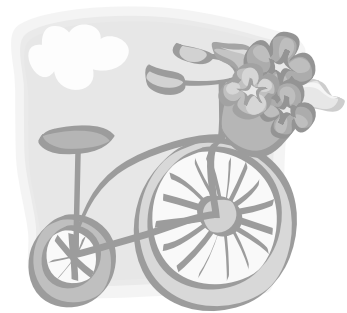
영상교육 등 유형별 체험교육시설 갖춰



교육신청은 인터넷 주소 <http://www.go119.org/> 로 5일전 예약 접수가 가능하며 체험교육내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철길건너기 △이론학습과 체험학습을 병행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이준원 공주시장, 유충호 공주경찰서장, 녹색어머니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관련 영상교육을 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시청각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10가지 유형별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실외교육장(체험교육)을 갖춘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을 축하했다.

공주시는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 지원사업인 어린이 교통학습 시설을 유치하여 2,600평에 14억6천3백만원을 들여 100평에 84석의 영상교육시설을 갖춘 실내교육장, 2,500평에 철도건널목, 터널, 인도,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갖춘 실외교육장에서 체계적인 교통안전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의식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금강프라자 이숙현 대표
공주대학교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6월 12일 총장 접견실에서 주식회사 금강프라자 이숙현 대표이사는 공주대 발전기금 500만원을 공주대 김재현총장에게 기탁하였다.

공주대학교는 기탁된 발전기금을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 조성과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농협 장학금 전달
93명에 3천여만원을 지급**



계룡농협(조합장 박상진)은 계룡농협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중 계룡면 월암리 조합원의 자녀 한성희 학생의 9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진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은 10대, 20대에 세운 계획이 40대에 큰 그릇으로 꽃이 필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하라”며 “여러분들은 계룡에서 태어나 계룡에서 자랐으니 계룡을 잊지 말고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할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조합장은 또한 “조합원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농협운영을 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계룡농협에서는 10년째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46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고교생 28명에게 각각 30만원, 중학생 2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총 2천9백90만원을 지급했다.

**임립미술관 임립 관장
전시회 수익금 전액 성금 기탁**



공주시 계룡면에 임립미술관을 세워 지방문화 활성화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임립교수가 ‘이주일의 금강인’으로 선정됐다.

임립교수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대전현대갤러리에서 ‘동심이 이야기;시르즈 100점 전시회’를 개최한 수익금을 대전삼성성결교회에 성금헌금으로 전달하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주시협의회
장애인 화재 가정에
새 보금자리 마련 '마음 훈훈'



지역의 한 건설협회가 주택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한 가정에 사랑 실천차원에서 새 주택 지어주기를 전개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회장 박상희)와 공주시협의회(회장 방재천)는 지난 해 12월 전기누전으로 집이 전소된 계룡면 유평리 이희돈(남, 49세)씨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들어갔다.

3천5백만원(도회 1천5백만원, 시협의회 2천만원)으로 마련하는 새 보금자리는 기존주택을 철거한 자리인 230㎡의 대지 위에 연건평 50㎡ 규모의 조립식 건물.

이희돈 씨는 정신지체 3급인 가장으로 청각 장애 2급인 처, 중학교 2학년인 아들 그리고 87세의 노부모를 직접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웅주로타리클럽
어려운 이웃 후원물품 기탁

웅주로타리클럽(회장 김태호)은 공주시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웅주로타리클럽 회원33명 대표해 김태호 회장의 6명은 후원물품 백미20kg, 42프와 라면 25박스(시가 1880만원)를 공주시예 전달했다. 공주시는 이날 기탁된 후원물품을 저소득 가정 42가구와 시청 씨름팀에 지원할 예정라고 밝혔다.

공주시새마을지회 금학동 회원,
어려운 가정 월1회 밑반찬 전달



공주시 금학동 새마을 가족들(회장 최근국, 진희순)은 금학동 내 어려운 5가정(박봉순 외 4명)을 선정하여 매월 1회씩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6월 12일에는 열무김치, 오뎅볶음,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박봉순 외 4명의 가정에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의 향기



제8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개막

7월18-20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제8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7월 18일 개막되어 3일 동안 개최되었다.

충청남도과 공주시, KBS 대전방송총국이 주최하고 박동진판소리선양회가 주관한 이번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판소리와 고법으로 나눠 경연하였다.

경연종목은 판소리가 명창부·일반부·신인부·학생부(초등·중등·고등부), 유아부 등 7개 부문이며, 고법은 명고부·일반부·신인부·학생부 등 4개 부문이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남녀로, 학생부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유아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로 한정했다.



박동진 판소리 대회 수상자 명단

【판소리부문】

□ 일반부

▶장원 박인혜(여, 23세), 충청남도지사상,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최재구(남, 19세), 충청남도의회 의장상, 상금 100만원

□ 신인부

▶장원 김순예(여, 60세), KBS대전방송총국 장상,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남화주(여, 33세), 공주시의회의 장상, 상금 30만원

□ 학생 고등부

▶장원 전태원(남, 16세), KBS대전방송총국 장상,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정은정(여, 18세), 공주시장상, 상금 50만원

□ 학생 중등부

▶장원 신다연(여, 13세), 공주시장상,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이원선(여, 14세), 공주시교육장 상, 상금 30만원

□ 학생 초등부

▶장원 김기진(남, 11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장상,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신지윤(여, 12세), 공주시의회의 장상, 상금 30만원

□ 유아부

▶장원 이찬우(남, 6세), 공주시장상,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장한별(여, 6세), 박동진판소리선양회장상, 상금 20만원

【고수부문】

□ 일반부

▶장원 정상화(남, 21세), 충청남도지사상,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박종창(남, 33세), 충청남도의회 의장상, 상금 50만원

□ 신인부

▶장원 한수산(남, 18세), 공주시장상,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박명언(남, 26세), 공주시의회의 장상, 상금 30만원

□ 학생부

▶장원 최원영(남, 17세), KBS대전방송총국 장상,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이보로(남, 18세), 공주시교육장 상, 상금 50만원



한여름 전설 속으로의 여행

‘2007 공주시 고마나루 축제’ 개막



한 여름 전설 속으로의 여행으로 유명한 2007년 공주시 고마나루 축제가 7월 14일 개막돼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선사하였다. 공주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시원한 놀이한마당을 선사할 2007년 고마나루 축제를 7월 14일 개막해 8월 18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저녁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변에 위치한 웅진동에서 개최될 고마나루 축제는

국악공연을 비롯 교향악연주, 놀이패 풍장시연, 댄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개막일인 14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놀이패 풍장의 ‘길놀이’를 비롯 중국기에 ‘변검’, PMC 난타 등이, 15일에는 라틴댄스·패즈댄스·에어로빅 등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열렸다.

21일에는 거문고·가야금·사물놀이 등 충남연정국악원 초청공연이, 22일에는 시민노래자랑 예선이, 28일에는 충남교향악단 초청공연으로 교향악 연주가 있게 된다.

29일에는 시민노래자랑 본선 및 장기자랑이, 8월 4일에는 사물놀이·선반·기악 등이 어울어진 놀이패 풍장의 축하공연이, 5일에는 댄스공연 ‘꾼’·대학그룹사운드 ‘가시나무새’의 Young festival이 마련돼 있다.

11일에는 충남 관악단(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의 ‘희망올림’ 초청공연이, 12일에는 부여 국악단의 거문고·가야금·사물놀이 공연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CMB 초청방송의 쌍쌍 노래자랑이 개최된다.



계룡산 화가 신현국

“빛이 있는 자연의 소리”란 주제로 서울서 전시회 가져

바다가 보이는 마을



계룡산 화가 신현국(70)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층 서울갤러리에서 ‘빛이 있는 자연의 소리’라는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시회를 실시하였다.

그는 “자연에 대한 느낌과 감동만 가지고는 진정한 예술작품을 완성할수 없다”며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구, 형제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 절실한 외로움이 양념처럼 배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절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기 위해 그는 여름풍경은 겨울에, 겨울풍경은 여름에, 계절을 바꿔서 작업을 한다.

신현국 화풍의 특징은 그림을 그리는 도구와 재료는 서양화적이지만 회화 언어는 동양적이다.

계룡산 풍경은 전통산수화를 보는 듯하고, 정물화에 서는 문인화의 격이 느껴진다.

예술의 향기



마곡사 포교당 범종 등 6건 道문화재로 지정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문화재 2분과 위원회(위원장 이해준 공주대학교수)를 개최하고 도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항 등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각 분야별 심의 사항은 도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공주 마곡사 포교당 범종 등 9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부여 무량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상 1건 등 총 10건으로 공주 마곡사 포교당 범종 등 6건에 대하여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천 영수암 목조 보살좌상 등 2건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기로 심의하였다. 또한 부여 무량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상에 대하여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신청하기로 심의하였다.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심의결과 공주 마곡사 포교당 범종, 연기 비암사 영산회괘불탱, 연기 비암사 소조아미타불좌상,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상, 서산 천장사 아미타후불탱화 등 6건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14회 충청남도 서예대전 공주에서 개최 문인화가 유정란 씨 대상 차지



이기하 한국서예협회 충청남도지회장은 “서예는 우리의 전통 예술 중에서 가장 고결한 품성과 심오한 정취가 담긴 생활예술의 하나이며 또 문인화는 동양예술의 신비를 나타낸 것으로 선비 정신을 가다듬는 표상”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제14회 충청남도서예대전을 백제문화의 산실인 우리 공주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대회에 주옥같은 작품을 출품하신 작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서예가 오랜 기간 학문에 정진하며 마음을 수양해온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을 아름다운 붓선과 농담을 살려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유정란 씨는 문인화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주희, 배영애, 윤석명씨가 우수상을, 구경자씨 외 57명이 특선에 입상했다.



향토 출신 작가 신간 소개
시안 황금알 시인선 13 | 임강빈 시집



집한채

하늘 길이
다 끝나지 않은 곳에
집한채
쓰러질 듯 서있다

담도 대문도 없는
이 집 주인은 누구일까
신록에 싸여
오히려 고대광실이다

멀리 빼꾸기가
한데 어울린다
허술한 집 한채
꿈속 궁전 같다

시인 임강빈

1931년 공주 출생. 195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당신의 손」 「동목」 「매듭을 풀며」 「등나무 아래에서」 「조금은 쓸쓸하고 싶다」 「버리는 날의 반복」 「버들강아지」 「비 오는 날의 향기」 「쉽게 씨가 쓰여지는 날은 불안하다」 「한 다리로 서 있는 새」 시선집 「초록빛에 기대어」가 있다. '충남문화상' '요산문학상' '상화시인상' '정훈문학상' 수상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공주공연 대성황



17년 동안 연극 애호인의 사랑을 받아 온 ‘지하철 1호선’ 이 공주 공연에 나서 관객들에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주시 공공시설관리소는 6월 14일과 15일 오후 7시 30분에 김민기 번안·연출, 학전 기획·제작의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을 공주문예회관 무대에 올렸다.

이번에 무대 ‘지하철 1호선’ 은 백두산에서 풋사랑을 나누는 한국 남자 ‘제비’ 를 찾아 온 중국 연변 처녀 ‘선녀’ 가 서울의 지하철 1호선과 주변에서 겪는 모습을 웃음과 해학으로 다루고 있다. 공연은 지하철 1호선에 최소 한번 이상 출연한 경력자들로 구성된 Again팀이 맡아서 관객들에게 매끄럽고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 하였다.

‘지하철 1호선’ 은 그동안 신인 등용문이라 불리울 만큼 많은 신인배우를 배출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3천회 공연을 일궈낸 장기 공연 뮤지컬로 유명하다.

또한, 1994년이후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원작자 폴커루드비히는 문화관광부장관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주 금강둔치서

‘건강사랑콘서트’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일 오후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에서는 ‘제3회 건강사랑콘서트’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신명나는 우리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세계 최강이라는 B-BOY ‘드리프터즈’ 의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져 주말 오후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공주시민들은 무대 옆에 마련된 건강부스에서 비만·혈압·골밀도 등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줄넘기·홀라후프 등 건강 관련 게임에 참여 하기도 했다.





‘낭만과 열정(Romantic & Passion)’을 그대에게 충남교향악단 113회 연주회 ‘대성황



6월 11일 오후 충남교향악단의 제113회 정기연주회가 매진을 기록,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낭만과 열정’을 주제로 개최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제113회 정기연주회에 800여명이 운집, 입추의 여지없이 꽉 메운 가운데 막을 올렸다.

성기열 충남교향악단운영기획팀장은 “입장권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며 “747석의 관람석이 모자라 100여장의 입석을 팔 정도로 뜨거운 성원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시민들의 문화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며 “오늘을 계기로 예매 문화도 함께 성숙·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세계 정상급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며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게르노트 슈말푸스의 객원지휘로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 도주’를 서곡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작품64’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연주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외 수많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으로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씨가 협연, 관현악의 반주위에 바이올린의 강렬한 멜로디로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공주문화원,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 공동주최

제12회 효(孝)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시상식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과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지부장 이극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2회 효백일장이 지난 6월 8일 효의 본고장 공주의 효사상을 널리함양,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소질계발,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데 기여코자 공주시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주 공산성 쌍수정 광장에서 초등부 380명(운문250명, 산문130명), 중등부 270명(운문

120명, 산문150명), 고등부 100명(운문60명, 산문40명)등 800여명의 공주관내 학생들이 모여 백일장 글짓기에 “孝”

사상 내용 및 내고향 공주라는 주제로 실시해 큰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21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된 작품은 공주문화원, 각학교, 기관 및 공주종합문예지 “공주소식”에 기재하여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기회의 계기의 팔판이 되길 기원한다.

글의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산문〉

초등부	장원	유다은 의량초등학교 6학년
	차상	최진영 이소희 권소연 박소정 이소정 신소희 김민지
	차하	박지은 박지효 송수환 안다혜 강다영 박주영 이수연 강지예 김한솔 이해영 유옥현 조규희
	참방	양정인 진혜민 조슬기 김혜지 문정현 오인석 김현겸 김현실 김서인 최철규 이선미 남성령 이아현 김민정 박상욱
	지도교사상	임영남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중등부	장원	강성배 공주봉황중학교 3학년
	차상	김예린 박정운 윤승목 이연주 엄슬아 김자영
	차하	김윤선 성지은 이아현 이해성 허슬기 양소현 김수정 한재립 이현주 이윤서
	참방	김현정 박수연 이상지 배찬호 강승호 김보슬
	지도교사상	강명화 공주여자중학교

고등부	장원	허준범 공주고등학교 2학년
	차상	전종길 윤지혜 정세희 하주현 윤빛나
	차하	이선영 양선영 김기홍 강병주 김인태 임재현 정하길 윤여운
	참방	심이슬 류예솔 황민경 최소영 윤성진 서윤애 임재범
	지도교사상	김혜지 공주여자고등학교

〈운문〉

초등부	장원	김태우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차상	서유진 남미현 김혜연 송현아 김재승 박연하 윤수정
	차하	김예진 지영완 나지현 조지영 김연신 최소연 김정운 김은비 이수현 김수정 오해련 임령경
	참방	김예빈 이유섭 김은초 정재훈 주슬기 구분아 한지은 이지현 강민아 오승연 정태하 조미선 이숙희 전선희 연송이 양다현 이은진 박현정

중등부	장원	송우현 공주여자중학교 3학년
	차상	신민영 심주용 유재경 우다민 한지혜 윤남희
	차하	전총비 정우정 김정은 서민정 원정미 최선경 이정민 변효진 윤여훈 서정민
	참방	박지연 이지혜 맹솔비 이기용 김정수 한신희 이해지 김선희 안성혁 이건혁 김수진 이해진 박지예 정다이

고등부	장원	강지수 공주고등학교 1학년
	차상	정그림 강전희 김태경 신진철 장진보
	차하	김택훈 윤하경 신미래 김한울 이동기 남궁윤미 이상원 김영지
	참방	양세진 이충원 정민정 이보영 윤 솔 명윤정 김성민



“에인촌 서른아홉번째 정기공연”

피아노와 장구이야기 공연

문화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예술하는 사람들 서른아홉번째 정기공연이 6월14일 오후 7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공연은 뉴턴 현대음악앙상블 초청, 피아니스트 강나영과 함께 하는 열린 콘서트로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련하여 악기와 관련된 주제로 강의(講義)연주회가 펼쳐졌다.

현대음악앙상블, 뉴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의 작품, 즉 우리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단체로 ‘새로운시작’,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은 “신록의 계절 6월에 때 아닌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때 그 열기를 식혀줄 작은 열린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연이 우리 지역의 음악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 Aat Festival 청소년 디자인 창작전

고압선미술학원 원장 김두영은 중·고등학생들의 열정을 다해 미술작품전을 준비하여 40점의 디자인작품과 20여점의 입체작품등을 공주문화원 제1,2 전시실에서 7월 14일에서 19일까지 전시하였다.



2007 8.9월 공주문화원 전시회 일정

2007 비상회

- 2007. 8. 6 ~ 8. 10
- 공주문화원 제1,2전시실

공주교육대학교 졸업작품전

- 2007. 9. 11 ~ 9. 18일까지
- 공주문화원 제1,2전시실



문화원소식

제12회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입상작

| 고등부 산문 장원 |

우리 할머니

히 준 범

| 공주고등학교 2학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포기 풀부터 아름답리 소나무까지 모두가 땅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깃들여 사는 작은 곤충들, 호랑이 같은 큰 짐승, 결국에 우리들까지 모두 땅에서 나와 땅에 기대어 먹고 또 살아간다. 땅은 계속해서 생명을 품어내고 길러내면서도 항상 느긋한 마음이다. 기꺼이 더 품고 더 베풀어 주려 한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땅을 닮으셨다. 부부가 같이 살며 닮듯,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신 후 억척스럽게 땅을 일구어 오신 할머니는 항상 곁에 둔 땅과 닮아 오셨나보다. 생명이 나와 계속 뿌리 내리고 성장 할 수 있는 땅의 속성. 할머니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이지 당신이 지니신 모습이기도 하다.

할머니께서는 이제까지 농사를 짓게된 작은 아버지 댁에서 직접 밭을 일구며 사셨다. 그 곳에 가면, 해충을 잡아 먹는다는 우렁이들이 득실대는 논두렁을 건너서 가지가 알뜰한 대추나무밭 길을 지나 조상님께서 잠 드신 초여름이면 아카시아꽃 향기가 오에 물어 오는 선산을 만난다. 그 산을 넘어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 오면 짙은 이파리를 뺀 내린 고구마, 귀엽게 달린 고추며 까끌까끌한 깻잎, 유난히 열매를 많이 맺는 토마토가 오목조목 심겨진 밭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어김 없이 작은 체구의 할머니께서 밭을 매만지시고 계신다. 언제나 뵈는 먼 소녀처럼 해 맑으신 미소다. 땀에 젖은 티에 진흙 댄 dnsed화 차림으로 다 큰손자가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달려 오면 두 손을 번쩍들어 맞아주셨다. 할머니 미소가 햇살을 받아 더 밝게 빛나는 때다.

손자, 손녀가 다 자란 지금에, 할머니께서 굽은 허리로 밭일을 하시는 건, 아무래도 아닌 일 같다는 말, 가족들이 모일때면 어김없이 하고 또 나도 항상 가진 생각이지만 할머니께서는 완고하셨다.

“나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빌어 먹고 살려다. 농사 그만 두라는 말은 하지 마라” 자식들이 편안하게 해 드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건만 할머니께서는 굳이 끝까지 그 호미를 쥐고자 하신다. 자주도 못찾아 뵈는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용돈이라도 쥐어드릴라 치면 그 용돈을 어김없이 한 자루의 고구마와 쌀과 차두, 살

구, 밤으로 돌아왔다. 끝까지 받고 또 받으라며 우격다짐을 하시는 할머니 앞에선 용돈을 논산품 상품권으로 써버린 자식들은 짹짹매고야 만다. 그런 할머니시다. 땅처럼 쉽 없이 주기만 하시는 할머니.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 계시던 걸 들었을 때는 이년 전 여름이었다. 그 나이의 위험한 병들 머릿 속에 스쳐가는 생각에 속이 갑갑해왔다. 할머니께서는 사실 뱀에 물리셨던 것은 병원에서야 알았다. 안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신 분이 밭일을 하시다 뱀에 물려 링겔 주사 바늘을 팔에 잔뜩 달고 계신 건 손자 얼굴을 붉게 만들어 버렸다.

그 날 한 솥 푹 끓여낸 사골 국물을 냉장고에 넣고 한 그릇은 밥을 풀어 할머니께 떠드리면서 자식들이 할머니의 밭일을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다.

작은 고모의 서툰 솜씨로 채 기름을 다 견지 못한 사골국물을 할머니께서 비우셨을 때 그제야 할머니께서는 이사를 결심하셨다. 마침 할머니께서 계신 곳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그저 묵묵히 말씀이 없으셨다. 이사 오실 곳은 우리 집으로 정해졌다 이번 해의 추석에 곧 팔릴 시골집에서 우리집으로 오신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댁을 다시 볼 겸 선산을 둘러볼 겸해서 나도 차에 몸을 실었다.

“이제 못 볼 곳이네요”

디지털 카메라로 장난스럽게 밭의 이군데 저 군데를 촬영하고 있었을 때였다. 할머니는 아쉬우신 듯 눈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다.

“그랴. 걱정이다. 편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녀. 이것 저것 따서 자식들 나누어 주고 이 집, 저 집 나누어 먹는게 재미였는디 말이여”

나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이사 오신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밭일을 하신다. 물론 예전처럼 풀내음이 넘실대는 큰 밭은 아니더라도 나누어 먹을 만할 채소리가 웅기종기 모인 작은 땅이 단지 뒤 공터에 있다. 여전히 마디 굵은 손으로 흙을 만지는 할머니 얼굴에서 흙을 본다.

그 밭은 상추며 오이도 할머니의 그리고 할머니의 땅에서 나고 또 자랐지만 할머니께서 흙내음을 맡는 나 또한 할머니로부터 나고 또 자라가고 있음을 느낀다. 막 흙을 씻고 나오신 할머니 손을 별안간 꼭 잡아드렸다.



문화원소식

제12회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입상작

| 고등부 은문 장원 |

할아버지의 꽃

강 지 수

| 공주고등학교 1학년

꽃이 피고 지면
그 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아버지의 사라진 그 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페이지에 남아
영원히 기억되기 보다는
한순간의 꽃이 되어
이름다움을 남기는 것

할아버지의 이 바램은
과연 이루어진걸까?

내 맘 속에 남아있는
이 꽃은 누구의 꽃일까?

흘러내리는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



제12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입상작

| 초등부 은문 장원 |

할아버지

김 태 우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내 이름 위에는 거울이 걸려 있어요.

웃고 있을 때보다는

울고 있을 때 더 밝게 비춰 준답니다.

친구와 싸우고 먼지를 뒤집어 썼을 때도

엄마를 속이고 달달달 떨고 있을 때도

사랑으로 타일러 주시는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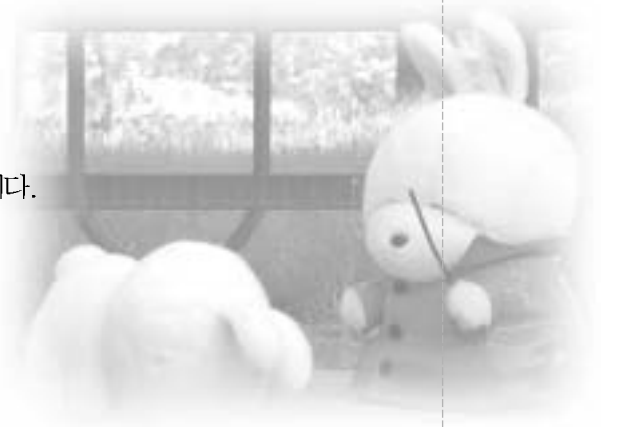
일흔두 살 멈추어진

흑백 사진 속 우리 할아버진

하하하,

언제나 웃으시며 나를 붙잡아주시지요.

내 가슴속에는 거울 하나를 안고 다닙니다.





알림

「반향공주문화소식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지는 고향 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아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주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gongju.cult21.or.kr

발행인_정재욱 |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852·9005, 852·7600 | 인쇄처_공주신문사(전화 041·853·8111)